

섭리사 전체가 변화해야 할 5가지

작성일: 2011. 1. 31. (월) 새벽 2:00

작성자: 유혜림 (평화의료선교부)

[섭리사와 선생님을 위해 기도한 후
섭리 전체에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기를 간구할 때
받은 말씀입니다.]

* 예수님 말씀 *

사랑하는 나의 섭리야,
나는 섭리의 영원한 신랑 주 예수니라.
섭리사 전체에게 전하는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반드시 실천하는 나의 신부들이 되기를 바라노라.

나의 섭리 나의 사랑아, 1년의 한 달이 지나가는구
나.

벌써 1년의 1/12이 지나갔다.

영계는 시간의 한계가 없는 영원한 세계이지만
이 땅은 유한한 세계, 시간의 제약이 있는 곳이니
1년이라는 제한된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야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구나.

육의 몸을 가지고 살아 보았기에
제한된 환경과 시간 속에서 얼마나 몸부림쳐야 하
는지

나 또한 잘 알고 있다.

육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나의 사랑 섭리야, 나태해지면 안 된다.

이제 2월인데 졸면 안 된다.

작년 12월에 한 해를 돌아보며

못한 것을 회개하고 통탄하지 않았느냐.

새해에는 모두 이루겠다고 각오하지 않았느냐.

올해는 변화의 대역사를 이루어야 되지 않았느냐.

내가 각자 개인에게 감동으로 준 깨달음이 있으니

각자는 올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것이다.

아직 깨닫지 못한 자는 더욱 간절히 기도하여

나의 구상을 받으라. 진정 간절히 권고하노라.

너희 개인의 삶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섭리의 변화도 부흥도 일어나지 않는다.

너희 개인 한 명 한 명이 너무나 귀하다.

간절히 원하는 모든 자에게 성령으로 능력 줄 테니
나와 함께 변화의 대역사에 동참하자.

사랑하는 섭리야,

올해 변화의 대역사를 위해

특별히 함께 해야 할 생활의 변화가 있으니

모두 기록하여 매일 지켜 행하도록 하여라.

이것은 모두 너희를 위한 것이다.

당연한 것이지만 새롭게 행해야 한다.

늘 하던 말이라고 생각하고 무시하지 마라.

너희를 사랑하여 간절히 애원한다.

이것을 지키는 것이 나에 대한 사랑의 실천이라고
생각하며

나와 약속해다오 반드시 지켜다오.

첫째는 새벽기도의 변화이다.

새벽에 나와서 모두 기도하여

교회를 부흥시키고 섭리를 부흥시키자.

새벽이 살아나야 한다.

새벽의 중요성은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삼위가 각 교회, 각 개인마다 심방하는 시간이니
모두 깨어 나를 맞으라. 새벽에 나를 만나야 한다.

그저 자기 할 기도만 하고 끝내지 말고

올해는 특히 새벽에 나와 대화하자.

나를 뜨겁게 만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나에게 새벽마다 눈물로 나아올 때

그에게 깨달음과 성령으로 함께할 테니

섭리야, 새벽을 깨우자!

너희가 자는 그 시간 내가 너무 외롭다.

섭리야, 새벽에 내게 고백해 다오.

나의 사랑을 받아주고 너의 사랑을 내게 다오.

우리 영원한 사랑이 새벽마다 이루어지길 바라노라.

둘째는 매일 말씀을 상고하여라.

주일, 수요일과 성경은 섭리의 기본이다.

새벽에 기도한 후에는 반드시 말씀을 상고하여라.

너희 삶에 말씀이 흐려지면 반드시 사탄이 역사하
니

각 개인이 말씀 위에 튼튼히 서야 한다.

특히 나를 만나고자 하는 자는

먼저 말씀 속에 살아있는 나를 깨달아라.

특히 지도자들, 바쁘다고 시간 없다고 소홀히 하지 마라.

매일 주일, 수요일 말씀 1번 읽는 것은
섭리사 신입생에게도 적용되는 기본이다.
지도자들은 1번 읽는 것에 그치지 말고
깨닫고 실천하기 위해 몸부림치며,
말씀을 정리하고 암기하여
안 보고도 외칠 정도가 되어야 한다, 알겠지?

매주 새로이 나오는 나의 말씀을 외쳐야 되지 않겠느냐?
생명을 살리는데 있어
그 때에 맞는 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여라.
그러므로 매주 매일 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실천
하는
섭리사 나의 신부들이 되기를 바란다.
이것은 진정 중요하다.
기도는 하되 말씀 보지 않는 자 위험하다.
말씀에 약한 자는 특히 새벽에
말씀을 읽은 후에 말씀의 방향에 맞춰
깊이 나와 대화하자.
그 주의 방향도 모른 채 어찌 나와 대화하려느냐?
말씀을 잘 깨달은 자가 기도할 때 나의 속이 시원
하다.

진정 나의 말씀이 귀함을 알고
매일 말씀 가운데 거하도록 최선을 다하여라.
틈만 나면 성경 읽고 틈만 나면 말씀 보아라.
그리고 수시로 무시로 나와 대화하자.
섭리사 모든 자들이 말씀이 육신화 되기를
진정 기도하노라.

셋째는 전도의 변화이다.
전도는 나를 증거하고 선생을 증거하는 것이다.
너희가 기도하고 말씀에 서 있다면
나를 증거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누구나 해야 할 일이 또한 전도이다.
유초등부들도 함께 해야 할 사명이 전도이다.
전도할 때 나의 심정, 선생의 심정 더욱 받는다.

말씀을 잘 몰라도 교회 한 번 와보라고는 할 수 있
고,
교회 강사나 지도자에게 연결할 수는 있다.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말씀을 잘 전하지 못하
더라도

얼마든지 시도할 수 있는 것이 전도이다.
작년에 1인 1명 하기로 하였지만 하지 못한 자가
많다.

그중에는 시도를 많이 했어도 남기지 못한 자도 있
고
마음은 있으나 시도하지 못한 자도 있다.
올해는 선교의 대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전도를 잘하는 자는 더 열심히 하자.
잘하는 자는 더 큰 그물로 더 큰 물고기를 낚아보
자.
많이 잡는 것도 방법이요, 큰 물고기를 낚는 것도
방법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교회마다 각종 전도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만들어
섭리사 모든 자들이 쉽게 전도할 수 있도록
지도자는 연구하고 또 연구하여라.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전도에 대한 어려운 인식이 들어가 있다.
나를 증거하는 것인데 그것이 왜 어려운 일이나?
그동안 핍박받고 악평을 이겨오느라.
전도를 생각하면 걱정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생명을 살리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니
너희는 나를 전하기만 하여라.
전도가 쉽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선교국뿐 아니라 모든 교회가
섭리와 각 지역에 맞는 좋은 방법을 많이 개발하여
라.

현대는 그저 나를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로는
전도하기가 어렵다.
신앙이 왜 필요한지, 영성이 왜 필요한지
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에 어떤 유익이 있는
지
잘 설명해 주어라.
그리고 선생과 섭리사를 잘 증거하는 자들이
진정 많아져야 한다. 전문 강사들이 많아져야 한다.
반대하는 자들도 얼마나 전문적으로 이론을 펼치느
냐!
그들의 말도 안 되는 이론에 혹하지 않도록
섭리 내에 섭리를 멋지게 증거하는 강사들이

진정 많이 배출되어야 한다.
올해는 전도를 위해 이 부분의 교육에도
특별히 신경 쓰도록 하자.

섭리에 온 모든 자들은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준비
하여라.
너희는 천년역사 앞에 뽑힌 나의 신부들이다.
당연히 나를 증거하고 선생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한
다.
시대 앞에 너희 스스로 더 노력해야 한다.
너희 모두는 한 사람도 그저 우연히 데려온 자가
없다.
너희 가문과 가정 가운데 중심자로 뽑고 뽑은 자들
이니
자신의 가치를 귀히 알고 자기를 잘 만들어야 한다,
알았지?
넷째는 교회의 변화이다.
나는 한 교회를 한 사람으로 볼 것이다.
목회자 중심으로 하나 되어
나의 육신이 되어 주기를 바란다.
각 개인도 나의 몸이 되어야 하지만
올해는 합봉된 교회 하나하나가 나의 육신이 되어
야 한다.
그것을 위해 각 교회는 진정 하나 되어야 한다.
나의 생각과 일치시키고, 나를 진정 사랑하며,
선생과 의논하고 교단과 의논하며,
교회 목회자를 중심으로
나의 군대가 되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자!

섭리사는 내가 은밀히 키우는 나의 군대이다.
사랑만 하는 애인 신부 조직이 아니라
나의 신부들로 구성된 군대 조직이다.
교회는 하나의 군단이 되어 각 지역에 배치되었으
니
그 지역을 나의 뜻으로 통솔하고
나의 신부들을 나의 뜻에 따라 양육하여라.
교회가 나의 군대 조직임을 잊지 말아라.

보이지 않는 사탄, 마귀, 귀신들과의
끊임없는 전투에서 승리해야 한다.
개인감정에 사로잡히면 실패한다.
승리는 나와 일체된 자만이 할 수 있다.
사탄과의 전쟁뿐 아니라
끊임없는 자기 자신과의 전투이기도 하다.

자신의 주관, 성격, 습관 모두 고치고
나의 사상으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몸으로 변화되
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훈련해야 한다.

그 중심에 교회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큰 자 보다는 교회 중심으로 성장한 자
가
더 빨리 변화할 것이다.
섭리사 나의 신부들은 명심하고
개인신앙 하던 자들은 모두 교회로 돌아가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섭리사에 유익을 남
겨라.
생명을 남기고, 나의 사랑을 전하고,
나의 몸 되어 작은 일이라도 행하여라.
각 교회에 가면 할 일이 너무나 많다.
올해는 특히 교회 중심으로 역사할 테니
각 부서들도 명심하여라.

다섯째는 경제의 변화이다.
개인과 가정을 중심으로 경제 활동하던 자들은
모두 회개하고 나와 먼저 의논하여라.
개인은 자기중심적인 삶을 빨리 버리고
나의 신부로서 나를 최우선으로 하여
나의 몸 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것은 나와 의논하고
나의 구상대로 행하여야 한다.

너희의 시간도 너희의 모든 활동도 나의 것이기에
나와 의논함이 기본이다.
24시간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사탄의 생각과 자기 주관에 빠져 있는 자,
세상에 빠져 있는 자가
어찌 천국을 찾아갈 수 있겠느냐?
생각해 보아라.
내가 너를 독점함은 진정 사랑하기 때문이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아도
나와 함께 했을 때 모두 잘되지 않았느냐?
네 생각대로 행했을 때 잘되는 일이 없지 않았느
냐? 경제도 마찬가지다.
나는 실상 돈이 필요 없다.
천국은 의로 살아가는 곳이니

내가 무슨 돈이 필요하겠느냐?
그러나 욕신의 세계는 경제가 하나의 소통의 수단
이니
의롭게 잘 활용해야 한다.
경제에 치우쳐 나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너희가(그것은 흑암 저 사망길로 가는 지름길이다.
그러므로 경제활동도 나와 의논해야 한다.

먼저는 반드시 십일조를 하는 것을 체질화하여라.
나는 성서에 이미 명시하였다.
십일조 하는 자만이 나의 물질축복을 받을 것이다.
십일조를 할 때 너의 경제활동이 의롭게 된다.
아무리 힘들어도 십일조와 감사헌금은 기본이다.
그것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

섭리사 나의 신부들의 어려움을 알지만
섭리사 전체가 조건이 되어야 물질축복 줄 수 있다.
섭리사에도 경제 공적 세운 자는
이미 물질축복을 개인적으로 받고 있다.
나는 섭리사 전체에게도 물질축복 주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희의 조건이 부족하다.
먼저는 하늘 앞에 너희 모두가 십일조의 조건을 쌓아라.
섭리사 전체가 십일조를 하여 하늘국고가 채워질 때
개개인에게 더욱 축복하리라.
감동되는 자는 교회마다 필요한 대로 경제를 지원하여라.
너희의 의와 공적이 크다. 내가 특별히 기억하리라.

욕신의 세계에서 경제를 통하여 할 일이 많다.
월명동 개발도, 선교활동 지원도, 섭리의 복지도,
또한 교회 건축에도 많은 경제 지원이 필요하다.
필요한 자에게 경제의 능력 줄 테니
자신이 경제적으로 많은 축복이 온다면
더욱 섭리를 위해 사용하도록 하여라.
너희 중에는 큰 교회를 건축할 자도,
큰 병원을 건축할 자도, 학교를 건축할 자도 있다.
큰 회사나 단체를 운영할 자들도 있다.
자신을 개발하고 더욱 나와 일체되어 행하기를 바란다.

사랑하는 나의 섭리야,
올해 변화해야 할 기본적인 5가지를 말하였다.

변화해야 할 것이 어찌 5가지뿐이겠느냐?
그러나 나를 사랑하는 자는
이 기본적인 5가지를 반드시 지킬 줄 믿는다.
섭리사를 너무나 사랑하여 구체적으로 말하였으니
반드시 행함으로 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노라.
사랑한다.

행함으로 변화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
하며
섭리의 영원한 신랑 주 예수.